



치유의 숲을 이용한 중장년층의 성공적 노화 인식과 치유관광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의 적용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among Middle Aged Healing Forest Visitors and their Behavioral Intention of Healing Tourism: An Application of the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김정환** · 김남조***

Kim, Jeong-Hwan · Kim, Nam-Jo

요약 : 100세 시대가 다가오는 가운데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치유의 숲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치유의 숲을 이용한 중장년층의 성공적 노화 인식과 치유관광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중장년층의 성공적 노화 인식을 일상의 안녕,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으로 구성한 후 계획행동이론에 추가하여 확장하였다. 설문조사는 치유의 숲을 이용한 만 40세부터 만 64세까지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312부의 유효 표본을 바탕으로 빈도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치유의 숲을 이용한 중장년층은 성공적 노화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의 성공적 노화 인식 중 일상의 안녕은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사회적 안녕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효능감은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치유관광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공적 노화 인식의 일상의 안녕,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은 치유관광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주로 노년학, 간호학, 체육학 등에서 다루고 있는 성공적 노화와 관광학의 치유관광을 대상으로 학제 간 접근을 시도하여 관광학의 이론적 확장에 기여하였다.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가 개인적·정책적으로 부족한 현실점에서 중장년층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하여 치유관광지에 대한 접근성 증진, 프로그램 지원과 참여 유인 등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Received April 20, 2021 Revised June 14, 2021 Accepted July 19, 2021

* 이 논문은 제88차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

This paper was expanded from the paper presented in the 88th Daegu Conference of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and changed to publish in this journal

**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석사과정. e-mail: lienba@naver.com

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Tourism, Hanyang University.

***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njkim@hanyang.ac.kr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Hanyang University.

핵심용어 : 중장년층, 성공적 노화 인식, 치유관광,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ABSTRACT: Middle-aged people in their 40s and older are found to be primary visitors of healing forests in South Korea. The present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of middle aged healing forests visitors and their behavioral intention of healing tourism. Using systemic sampling method,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the Bongsan Healing Forest visitors in their 40s to 65, and a final sample of 312 was used for the data analysis. We found that the more the participants think daily welling is important in their successful aging, the better they are likely to have positive attitude and perceived control on healing tourism. Results also show that the research participants' awareness of importance on psychological welling in the successful aging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ir attitude and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of healing tourism.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e healing forest visitors' awareness of importance on the self efficacy in the successful aging is significantly impact on their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control on healing tourism. Furthermore, we found that the healing forest visitors attitude and subjective norm of healing tourism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behavior intention of healing tourism. This study contributed to the theoretical expansion of tourism sciences by introducing the conceptual framework of successful aging that is relatively new in the field of tourism sciences and has been mostly studies in other fields such as gerontology, nursing, and physical education.

Key words : Middle-aged people,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Healing tourism,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I. 서 론

100년 동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건강한 삶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아 성찰과 성장,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관계의 의미를 충족시켜주는 웰니스관광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Steiner & Reisinger, 2006). 웰니스관광은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이다(Smith & Puczko, 2008; Voigt, Brown, & Howat, 2011; Wray, Laing, & Voigt, 2010). 문화체육관광부(2017)는 웰니스관광을 “건강과 힐링(치유)을 목적으로 관광을 떠나 스파와 휴양, 뷰티(미용), 건강관리 등을 즐기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2017년부터 ‘웰

니스관광 25선’을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웰니스관광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중보건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치유의 숲을 포함한 치유관광 관련 사업에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김진옥·김남조, 2017).

웰니스관광 중 하나인 치유관광은 산림, 해양, 농업 등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학계는 산림을 기반으로 한 치유센터와 치유의 숲에서 이루어지는 치유관광을 주목하면서, 관련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해오고 있다(김진옥·김남조, 2019; 박석희·신원섭·최종환·신창섭·연평식·이주영, 2020; 이정원·연평식·박석희·강재우, 2018; Corazon, Stigsdotter, Moeller, & Rasmussen, 2012; Vukin & Isailović, 2018). 구체적으로 치유관광은 스트

레스 감소(Corazon *et al.*, 2012), 긍정적 감정 향상(이정원 외, 2018), 건강 증진(Vukin & Isailović, 2018), 그리고 삶의 질 향상(김진옥·김남조, 2019)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관광 유형의 전형적인 이용자는 중장년층으로 건강과 활력, 휴식과 휴양, 일탈과 같은 동기를 지니고 참여한다(Smith & Puczko, 2008). 중장년층은 신체적인 노화를 경험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시기로 활기 있는 생활 태도와 신체 능력 등을 유지하며 성공적 노화에 이르기 희망한다(김현성·이기영·김강민·이교창·안준형·황재건, 2019; Calasanti, 2016; Rowe & Kahn, 1997; Sabia, Singh, Hagger, Cambois, Brunner, & Kivimaki, 2012). 특히 중장년층은 성공적 노화를 가치 있고, 가능한 것으로 바라보며 성공적 노화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Calasanti, 2016).

성공적 노화와 관광 관련 연구는 관광활동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윤혜진, 2020)를 비롯하여 여가활동(이호길·김광용·심준섭, 2020), 레저스포츠 참여의사(이병찬·이천희, 2013)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연령과 세대에 따라 관광 동기과 특성, 만족도 등의 차이가 존재하나(윤혜진, 2020), 아직 중장년층의 성공적 노화 인식이 관광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더욱이 건강과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치유의 숲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이정희·유리화·이정원, 2016; 장운선·손용훈, 2017; 조택희·이연호·김상미, 2014), 이들의 치유관광 행동의도를 살펴보는 시도는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치유의 숲을 이용한 중장년층의 성공적 노화 인식과 치유관광 행동의도 간 영

향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였다.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은 인간의 행동 예측,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며, 계획행동이론에 요인을 추가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은 관광학 분야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유용성이 검증되어왔다. 이 연구에서는 일상의 안녕,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으로 구성된 성공적 노화 인식을 계획행동이론에 추가하여 확장하였다.

이 연구는 노년학, 간호학, 체육학 등에서 다루고 있는 성공적 노화와 관광학의 치유관광을 대상으로 학제 간 접근을 시도하여 관광학 이론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치유관광과 관련된 중장년층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체가 치유관광을 기획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중장년층과 성공적 노화 인식

중장년층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구성원 가운데 나이가 중년과 장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연령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김현성 외(2019)는 40세부터 59세를, 이운해·박상철·김동진(2020)은 40대부터 60대를 중장년층으로 보았다. 통계청은 고령화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1년마다 ‘중·장년층 행정통계’를 발간하고 있다. ‘중·장년층 행정통계’에서는 중장년층을 만 40세부터 만 64세에 해당하는 내국인으로 설정하여 중장년층 가구와 세대구성, 고용형태, 소득 등의 통계자료를 제시

하고 있다(통계청, 2020).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수립과의 연계성, 실무적 시사점 등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의 연령을 만 40세부터 만 64세까지로 정의하였다. 시기의 측면에서 중장년층은 은퇴 전·후세대로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신체적·정신적 노화와 함께 노후에 대한 불안을 감지하는 시기이다(이운해 외, 2020).

이러한 중장년층은 성공적 노화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Calasanti, 2016). 성공적 노화는 “나이가 들어가도 신체와 정신적 기능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 유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제력, 주관적 안녕감 등을 지닌 상태”를 의미한다(김춘경·이수연·이운주·정종진·최용용, 2016). 성공적 노화의 주요 모델 중 하나인 Rowe and Kahn(1997)의 성공적 노화 모델은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인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신적·신체적 기능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단절된 채 혼자 외롭게 살아간다면 성공적 노화의 상태로 볼 수 없는 것을 뜻한다(Minkler & Fadem, 2002). 즉, 신체적, 사회적, 인지·심리적 요인이 맞물려 있는 상태를 성공적 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Rowe and Kahn의 성공적 노화 모델은 “노화의 달성을 결정하는 생물학적, 행동적, 사회적 요인에 관한 관심을 증가시켰고, 삶의 마지막 수십 년에 대한 새롭고 예방적이며 낙관적인 접근법의 채택을 장려했다”고 평가받는다(Villar, 2012, p.1089). 그러나 이 모델은 노년학 분야에서 연구자들의 다양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 Martinson and Berridge(2015)는 Rowe and Kahn의 성공적 노화 모델에 대한 연구자들의 비판을 종합하여 추가와 쉼기(Add and Stir), 사라진 목소리(the Missing Voices), 직설적인 비평(Hard Hitting Critiques), 새

로운 프레임과 이름으로 분류하였다. 추가와 쉼기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여 모델을 확장하여야 한다는 비판으로 구성하였고, 사라진 목소리는 다양한 문화적 관점에서 성공적 노화에 접근하여야 한다는 비판을, 직설적인 비평은 개인주의와 능력주의 등에서 비롯된 비판을, 새로운 프레임과 이름은 노화에 대해 전체적이고 통합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관련된 이해를 반영해야 한다는 비판으로 구성하였다(Martinson & Berridge, 2015).

또 다른 성공적 노화의 주요 모델인 Baltes and Baltes(1990)의 SOC 모델(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은 발달 심리학 관점에서 성공적 노화가 일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이 모델의 관점에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삶의 영역을 선택(Selection)하고, 선택한 영역에서 성공을 촉진하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 자원 등을 최적화(Optimization)하며, 지속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선택한 영역의 손실을 보상(Compensation)한다. 따라서 SOC 모델을 바탕으로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중장년층은 중요한 삶의 영역으로 건강을 선택하였고, 선택한 영역의 성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치유의 숲을 이용하며, 노화에 따른 손실을 지속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을 계속 선택할 수 있다.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인으로 Ryff(1989)는 자율성, 자아수용, 개인적 성장, 목적의식, 환경 적응, 다른 사람과 긍정적 교류라는 요인을 제시하였고, Chou and Chi(2002)는 기능적 상태, 정서적 상태, 인지적 상태, 생산적 참여 상태라는 요인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인이 인식하는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고, 안정신·강인·김윤정(2009)은 일상의 안녕,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이라는 요인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성공적 노화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하는 데 있어 많은 연구에서 안정신 외(2009)의 일상의 안녕, 심리 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 요인이 활용되고 있다(강인, 2016; 이병찬·이천희, 2013; 최은영·최혜경, 2015).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 인식을 “일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노화를 위하여 일상의 안녕·심리사회적 안녕·자기효능감 등의 상태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한다.

고령사회 속 다양한 문제를 먼저 경험한 미국, 일본 등의 국가는 노년학의 활동 이론으로부터 시작된 성공적 노화를 바탕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윤혜진, 2020). 우리나라에서는 중장년층의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연구(이윤주·박정숙, 2015; 이은정·성미혜, 2017)와 성공적 노화 인식이 태도와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최은영·최혜경, 2015)를 포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윤주·박정숙(2015)은 중년 여성 220명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 인식과 건강증진행위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였다. 중년 여성의 성공적 노화 인식은 평균평점이 3.41(척도범위: 1~4)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공적 노화 인식과 건강증진행위 간의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은정·성미혜(2017)도 건강지각과 성공적 노화 인식이 건강증진행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병찬·이천희(2013)는 성공적 노화 인식과 태도, 레저스포츠 참여의사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였고,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레저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사혜지·이철원·김민정(2017)은 개인이 인간관계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 등을 뜻하는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과 성공적 노화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며, 사회 활동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하

였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의 지지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유영미·김성희, 2019; 한송이·윤순영, 2015)를 통하여 중장년층의 성공적 노화 인식과 주변인의 치유관광에 대한 지원, 이해 등 주관적 규범과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Shirani, Kheirabadi, Sharifirad, and Keshvari (2019)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이 건강 증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성공적 노화를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노인의 일반적인 건강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 있어 태도 변화 등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인의 능력, 환경, 시간 등이 성공적 노화를 위한 건강 증진 활동이나 프로그램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이병찬·이천희, 2013; Cho, Martin, Poon, & Georgia Centenarian Study, 2015; Marquez, Bustamante, Blissmer, & Prohaska, 2009), 성공적 노화 인식과 개인의 능력, 환경, 시간 등의 비동기적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는 지각된 행동통제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 들어 관광학 분야에서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윤혜진, 2020; 이호길 외, 2020). 관광이 성공적 노화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윤혜진, 2020)와 여가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이호길 외, 2020)는 존재하나, 성공적 노화 인식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관광 유형을 파악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중장년층은 성공적 노화를 가치 있고, 가능한 것으로 바라보며 성공적 노화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는 연구결과(Calasantì, 2016)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치유의 숲을 이용한 중장년층이 성공적 노화를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검증하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성공적 노화 인식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관광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령화 현상으로 100세

시대 진입이 다가오고, 건강과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장년층의 성공적 노화 인식과 치유관광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이 연구는 시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중장년층과 성공적 노화 인식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치유의 숲을 이용한 중장년층은 성공적 노화를 중요하게 인식한다.

가설 2. 성공적 노화 인식은 치유관광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1. 성공적 노화 인식의 일상의 안녕은 치유관광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2. 성공적 노화 인식의 심리사회적 안녕은 치유관광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3. 성공적 노화 인식의 자기효능감은 치유관광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 성공적 노화 인식은 치유관광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1. 성공적 노화 인식의 일상의 안녕은 치유관광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2. 성공적 노화 인식의 심리사회적 안녕은 치유관광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3. 성공적 노화 인식의 자기효능감은 치유관광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4. 성공적 노화 인식은 치유관광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4-1. 성공적 노화 인식의 일상의 안녕은 치유관광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4-2. 성공적 노화 인식의 심리사회적 안녕은 치유관광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4-3. 성공적 노화 인식의 자기효능감은 치유관광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8. 성공적 노화 인식은 치유관광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8-1. 성공적 노화 인식의 일상의 안녕은 치유관광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8-2. 성공적 노화 인식의 심리사회적 안녕은 치유관광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8-3. 성공적 노화 인식의 자기효능감은 치유관광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2. 치유관광

치유관광은 긴장완화, 몸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떠나는 관광으로 건강관광의 영역 중 웰니스관광에 속한다(Smith & Puczko, 2008). Dunn(1959)에 의하면 웰니스는 전반적인 웰빙 느낌으로 구성된 건강상태로 몸과 마음, 정신 등의 요인이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웰니스관광은 웰니스를 추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관광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김진옥(2015, p.33)은 우리나라의 치유관광을 “치유를 목적으로 자연기반의 관광목적지에서 건강추구(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영성적, 직업적)와 관련된 관광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치유관광은 산림을 비롯하여 해양과 농업 등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치유관광의 유형으로 숲 치유관광, 해양 치유관광, 농촌 치유관광, 온천 치유관광 등이 있다(김진옥

· 김남조, 2017). 특히 숲 치유관광과 관련하여 치유의 숲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프로그램 등은 스트레스 감소와 긍정적 감정 향상, 회복 탄력성과 행복감, 건강 증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옥·김남조, 2019; 박석희 외, 2020; 이정원 외, 2018; Corazon *et al.*, 2012; Vukin & Isailović, 2018). 박석희 외(2020)는 치유의 숲, 산림치유원 등에 방문한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산림치유편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사회적 건강과 주관적 안녕, 우울-불안, 행복, 사회적 건강, 활력-낙관 등으로 구성된 산림치유편의 척도는 정신적 웰빙, 주관적 행복감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주요 연령대는 4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이정희 외, 2016; 장운선·손용훈, 2017; 조택희 외, 2014). 조택희 외(2014)는 청태산 치유의 숲과 장성 치유의 숲, 산음 치유의 숲에서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조사참여자 666명 중 40대 33.9%, 50대 26.0%로 나타나 중장년층이 산림치유의 숲과 휴양림을 방문하는 주요 연령층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40~50대 중장년층의 비율인 약 40%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중장년층의 관심이 치유의 숲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정희 외(2016)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청태산 치유의 숲과 장성 치유의 숲, 산음 치유의 숲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조사참여자 2,169명 중 40대 22.5%, 50대 29.5%, 60대 12.2%로 40대에서 50대에 속하는 연령대가 전체 이용자의 52%를 차지하였다. 장운선·손용훈(2017)은 장성 치유의 숲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조사참여자 중 40대 13.3%, 50대 46.7%, 60대 이상 30.0%로 나타났으며, 중장년층은 휴식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치유의 숲

에 방문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주요 연령층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치유의 숲을 통해 스트레스 감소, 건강 증진, 행복감 증진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받는다. 특히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치유의 숲 프로그램은 이용자에게 맞춤형식으로 제공해야 하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령사회 속 노년층으로 접어드는 중장년층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치유관광 행동의도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3.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계획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Fishbein and Ajzen(1975)의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을 바탕으로 Ajzen(1991)이 발전시킨 이론이다. 합리적 행동이론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라는 동기적 요인에 의해 행동의도가 예측되는 것으로 가정되어 개인의 능력, 환경, 시간 등 비동기적 요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Ajzen(1991)은 합리적 행동이론에 지각된 행동통제라는 비동기적 요인을 추가하여 이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행동의도 예측의 설명력을 높였다. 즉, 계획행동이론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라는 동기적 요인과 지각된 행동통제라는 비동기적 요인을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의도를 예측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모델이다.

계획행동이론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요인을 추가하여 이론의 설명력을 높인 확장된 계획행동이론(ETPB: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이 등장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다(김진옥·김남조, 2013; Hong, Gittelsohn, & Joung, 2010; Lin, Hsu, Ho, & Lai, 2020). Hong *et al.*

(2010)은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효과적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자 계획행동이론에 개인의 특성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교육, 건강상태와 같은 개인의 특성이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의도 간의 영향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진옥·김남조(2013)는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이 급증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계획행동이론에 기후변화인식이라는 요인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기후변화인식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Lin *et al.*(2020)은 대만의 중년층과 노년층이 자전거관광을 선호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계획행동이론에 스포츠습관이라는 요인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스포츠 습관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주위에서 일어나는 관광현상을 바탕으로 계획행동이론에 영향력 있는 요인을 추가하였고, 건강과 관련된 행동의도를 규명하는 데 있어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건강과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주요 연령층이 중장년층인 현상을 고려하여 성공적 노화 인식을 계획행동이론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치유의 숲을 이용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성공적 노화 인식과 치유관광 행동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계획행동이론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치유관광에 대한 태도는 치유관광 행

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6. 치유관광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치유관광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7. 치유관광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치유관광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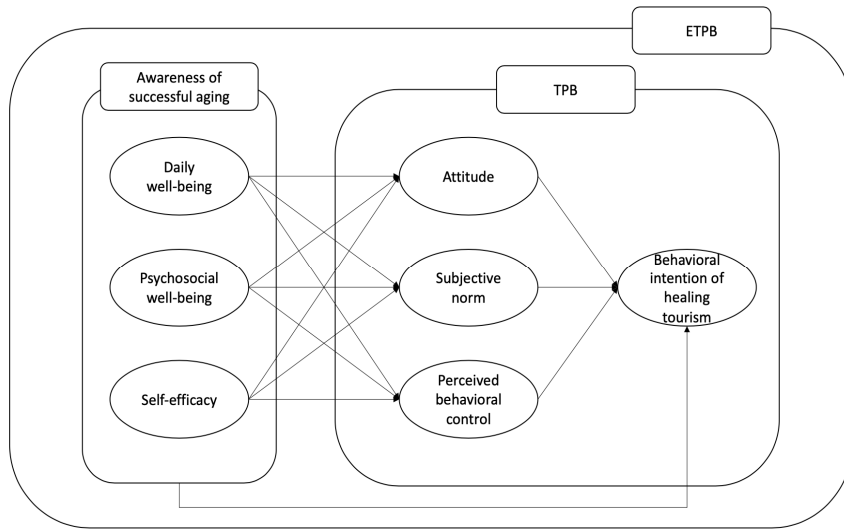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치유의 숲을 이용한 중장년층의 치유관광 행동의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계획행동이론에 성공적 노화 인식을 추가하였다. 관광학 분야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유용성이 검증되어 온 계획행동이론에 성공적 노화 인식을 추가하여 치유관광과 관련된 관광이론을 축적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가설을 설정하였고, 설정한 가설을 바탕으로 <Figure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2. 설문지 구성

이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 인식은 안정신 외(2009)가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이론 통해 개발한 모델을 활용하였다. 안정신 외(2009)의 모델은 중장년층의 성공적 노화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하는 데 있어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강인, 2016; 이병찬·이천희, 2013; 최은영·최혜경, 2015). 문항은 일상의 안녕 4문항, 심리사회적 안녕 4문항, 자기효능감 4문항으로 구성하고, 리커트 5점 척도(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장년층이 성공적 노화를 이루는데 해당 문항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Figure 1〉 Research model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바탕으로 진행된 선행 연구(김진옥·김남조, 2013; Hong *et al.*, 2010; Lin *et al.*, 2020)에서 태도 4문항, 주관적 규범 4문항, 지각된 행동통제 4문항, 행동의도 4문항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총 16개의 문항을 이 연구에 맞게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는 '봉산 편백나무 치유의 숲'을 이용한 만 40세부터 만 64세까지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측정문항이 이 연구에 적합한 항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광학을 전공하는 석사·박사과정 재학생과 졸업생 7명, 관광학과 교수 1명에게 검토받았다. 또한 설문지 구성이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치유의 숲을 이용한 중장년층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하였고, 예비조사에서 특

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20년 10월 20일부터 11월 22일 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위치한 봉산 편백나무 치유의 숲에서 계통추출법(Systematic Sampling)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지인 봉산 편백나무 치유의 숲은 서울특별시 최초로 만들어진 치유의 숲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편백나무 1만 2,400주를 심어 조성한 곳이다(은평구청, 2020). 서울관광재단(2020)은 서울에서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봉산 편백나무 치유의 숲을 소개하였다. 이 연구의 표본추출방법으로 적합한 계통추출법은 확률 표본추출방법 중 하나로 첫 번째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고, 이후부터는 n번째 대상을 뽑아 표본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치유의 숲 안내판이 설치되어있는 봉산 편백나무 치유의 숲 전망대 쉼터에서 매 3번째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하여 설문지는 QR코드에 담아 제공하였다.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KF94 마스크를 소정의 기

넘품으로 제공하였다. 설문은 총 410회를 시도하였고, 이 중에서 339회가 이루어져 설문조사의 응답률은 82.68%이다. 회수한 설문지 339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27부를 제외하고 312부를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총 312부의 유효 표본을 바탕으로 SPSS 26.0을 이용해 빈도 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분석을 통해 나타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44.2%(138명), 여성 55.8%(174명)로 나타났다. 연령은 만 50~59세 48.1%(150명), 만

40~49세 44.2%(138명), 만 60~64세 7.7%(24명) 순으로 나타났고,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 69.6%(217명)이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2년제 대학교 졸업 16.7%(52명), 대학원 졸업 7.4%(23명), 고등학교 졸업 미만 6.4%(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53.5%(167명),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1.1%(97명),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7.7%(24명), 800만원 이상 4.5%(14명), 200만원 미만 3.2%(10명)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기혼 93.6%(292명)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직업은 사무/관리직 34.3%(107명), 주부 22.4%(70명), 서비스직 14.7%(46명), 전문직/기술직 8.3%(26명), 자영업 7.7%(24명), 공무원 7.4%(23명), 기타 5.1%(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치유관광 시 동반자 유형은 가족이 64.7%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N=312)

Variables		Frequency(%)	Variables		Frequency(%)
Gender	Male	138(44.2)	Occupation	Office worker	107(34.3)
	Female	174(55.8)		Service employee	46(14.7)
Age	40~49	138(44.2)		Self ownership	24(7.7)
	50~59	150(48.1)		Public servant	23(7.4)
	60~64	24(7.7)		Housewife	70(22.4)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less	20(6.4)		Profession	26(8.3)
	College	52(16.7)		Others	16(5.1)
	University	217(69.6)		Type of Companion	Family
Graduate school	23(7.4)	Colleague			20(6.4)
Monthly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10(3.2)			Friend
	2~4 million won	24(7.7)	Society		14(4.5)
	4~6 million won	167(53.5)	Alone	16(5.1)	
	6~8 million won	97(31.1)	Others	2(0.6)	
Marital status	Over 8 million won	14(4.5)	Preferred Period	1 day	215(68.9)
	Single	20(6.4)		1 night 2 days	82(26.3)
	Married	292(93.6)		2 night 3 days	12(3.8)
			3 nights 4 days or more	3(1.0)	

Note: 1 million KRW(won) = 896 USD

(202명)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친구 18.6% (58명), 직장동료 6.4%(20명), 혼자 5.1% (16명), 동호회 4.5%(14명), 기타 0.6%(2명)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치유관광 시 선호하는 기간은 1일(당일)이 68.9%(215명)이었으며, 이어서 1박 2일 26.3%(82명), 2박 3일 3.8%(12명), 3박 4일 이상 1.0%(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산림치유센터와 치유의 숲 등 치유관광자원이 일상생활권역에 마련되면서 짧은 일정 동안 치유관광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2.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문항에 대하여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 분석은 주축 요인 추출 방법과 베리맥스 회전을 사용하였다.

성공적 노화 인식은 일상의 안녕,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이라는 3개 하위 요인으로 구분된다. 총 분산 설명력은 87.681%로 60% 이상의 높은 설명력을 가진 것을 확인하였다. KMO 값은 0.839로 기준치인 0.6 보다 높

았고,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카이제곱이 5188.635,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수준인 0.05 미만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하였다. 각 요인의 요인적재량은 0.862~0.940으로 기준치인 0.4 보다 높았고, 공통값도 0.775~0.933으로 기준치인 0.4 보다 높게 나타나 타당도를 만족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0.955~0.972로 기준치 0.7 보다 높게 나타났다.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의 총 분산 설명력은 80.752%이며, KMO 값은 0.866,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카이제곱이 3766.265,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요인 분석 모형이 적합하였다. 요인적재량은 0.753~0.933, 공통값은 0.667~0.929로 나타나 타당도를 만족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0.935~0.946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치유관광 행동의도의 총 분산 설명력은 79.983%이며, KMO 값은 0.848,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카이제곱이 1149.722,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요인 분석 모형이 적합하였다. 요인적재량은 0.847~0.920, 공통값은 0.718~0.846으로 나타나 타당도를 만족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0.941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Table 2> Results of the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es for the measurement model

Items		Factor loadings	Communality	Eigen value	Variance	Cronbach's α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It is important to spend time fruitfully and well in achieving successful aging	.919	.933	3.593	29.939	.972
	It is important not to have any inconvenience in moving the body in achieving successful aging	.906	.907			
	It is important to stay active as long as possible in achieving successful aging	.902	.905			

	It is important to be financially prepared in achieving successful aging	.862	.840			
	It is important to interact with others regularly in achieving successful aging	.940	.893			
	It is important t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relatives in achieving successful aging	.906	.835			
Psychosocial well-being	It is important to be satisfied with my past life in achieving successful aging	.921	.866	3.390	28.246	.955
	It is important to be grateful for what I have achieved throughout my life in achieving successful aging	.867	.775			
	It is important to be able to achieve what I want to achieve in achieving successful aging	.906	.912			
Self-efficacy	It is important to maintain good thinking ability and memory in achieving successful aging	.912	.927	3.539	29.495	.970
	It is important to have the ability to grow myself in achieving successful aging	.873	.874			
	It is important to manage my life thoroughly in achieving successful aging	.863	.854			
Sum of variance=87.681%, KMO=.839, Chi-Square=5188.635, Sig=.000						
	I think healing tourism is pleasant	.851	.786			
	I think healing tourism is attractive	.933	.929			
Attitude	I think healing tourism is positive	.868	.812	3.287	27.388	.946
	I think healing tourism is helpful	.811	.739			

Subjective norm	People who are important to me will support me on taking healing tourism	.919	.861	3.288	27.404	.946
	People who are important to me will recommend me on taking healing tourism	.926	.873			
	People who are important to me will agree with me on me taking healing tourism	.880	.794			
	People who are important to me will understand me taking healing tourism	.846	.737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 have the opportunity to take a healing tourism	.873	.850	3.115	25.961	.935
	I can take a healing tourism whenever I want	.862	.846			
	I have the ability to take a healing tourism	.856	.797			
	I have the financial means to take a healing tourism	.753	.667			
Sum of variance=80.752%, KMO=.866, Chi-Square=3766.265, Sig=.000						
Behavioral intention of healing tourism	I intend to take a healing tourism in the near future	.920	.846	3.199	79.983	.941
	I will make an effort to take a healing tourism in the near future	.908	.824			
	I am making a plan to take a healing tourism in the near future	.901	.812			
	I am readily willing to invest money and time to take a healing tourism in the near future	.847	.718			
Sum of variance=79.983%, KMO=.848, Chi-Square=1149.722, Sig=.000						

3. 가설검증 및 논의

1) 가설 1(치유의 숲을 이용한 중장년층은 성공적 노화를 중요하게 인식한다)

치유의 숲을 이용한 중장년층이 성공적 노화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상의 안녕은 평균 4.509(SD=0.609), 심리사회적 안녕은 평균 4.266(SD=0.666), 자기효능감은 평균 4.566(SD=0.597)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 인식의 하위 요인인 일상의 안녕,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의 평균이 ‘중요하

다’를 상회하였다. 따라서 치유의 숲을 이용한 중장년층은 성공적 노화를 비교적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관광이 성공적 노화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윤혜진, 2020), 여가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이호길 외, 2020), 그리고 중장년층은 성공적 노화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는 연구결과(Calasanti, 2016)를 바탕으로 중장년층은 치유의 숲 이용을 통하여 성공적 노화 인식의 긍정적 전환, 즉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유추

〈Table 3〉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on hypothesis (H2)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statistic	p-value
		B	Std. error	β		
Daily well-being	Attitude	.464	.057	.462	8.179	.000***
Psychosocial well-being		.318	.044	.346	7.267	.000***
Self-efficacy		-.073	.059	-.071	-1.245	.214
$R^2 = .347$, Adjusted $R^2 = .340$, $F = 54.495$, Sig $F = .000$						

*** $p < .001$

할 수 있다.

2) 가설 2(성공적 노화 인식은 치유관광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성공적 노화 인식의 하위 요인인 일상의 안녕,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수정된 R^2 은 0.340으로 나타나 34.0%의 설명력이 확인되었고, F 값이 54.495, 유의확률 값이 0.000으로 나타나 기준치인 0.05 보다 작으므로 회귀모형은 적합하였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1.908로 2에 가까운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었고, 분산팽창지수는 1.506, 1.068, 1.551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상의 안녕($\beta = 0.462$, $p < 0.001$)과 심리사회적 안녕($\beta = 0.346$, $p < 0.001$)은 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 유의확률 값이 0.214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1과 가설 2-2는 지지되었고, 가설 2-3은 기각되어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3) 가설 3(성공적 노화 인식은 치유관광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친다.)

성공적 노화 인식의 하위 요인인 일상의 안녕,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주관적 규범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수정된 R^2 은 0.395로 나타나 39.5%의 설명력이 확인되었

〈Table 4〉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on hypothesis (H3)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statistic	p-value
		B	Std. error	β		
Daily well-being	Subjective norm	.111	.058	.103	1.899	.058
Psychosocial well-being		.263	.045	.266	5.839	.000***
Self-efficacy		.489	.060	.445	8.096	.000***
$R^2 = .401$, Adjusted $R^2 = .395$, $F = 68.658$, Sig $F = .000$						

*** $p < .001$

〈Table 5〉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on hypothesis (H4)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statistic	p-value
		B	Std. error	β		
Daily well-being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351	.058	.341	6.038	.000***
Psychosocial Well-being		.239	.045	.255	5.349	.000***
Self-efficacy		.196	.060	.187	3.260	.001**
R ² = .346, Adjusted R ² = .340, F = 54.293, Sig F = .000						

p<.01, *p<.001

고, F 값이 68.658, 유의확률 값이 0.000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은 적합하였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2.098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었고, 분산팽창지수는 1.506, 1.068, 1.55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심리사회적 안녕($\beta=0.266$, $p<0.001$)과 자기효능감($\beta=0.445$, $p<0.001$)은 주관적 규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의 안녕은 유의확률 값이 0.58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2와 가설 3-3은 지지되었고, 가설 3-1은 기각되어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4) 가설 4(성공적 노화 인식은 치유관광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친다)

성공적 노화 인식의 하위 요인인 일상의 안녕,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지각된 행동통제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수정된 R²은 0.340으로 나타나 34.0%의 설명력이 확인되었고, F 값이 54.293, 유의확률 값이 0.000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은 적합하였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2.182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었고, 분산팽창지수는 1.506, 1.068, 1.55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을 것을 확인하였다. 일상의 안녕($\beta=0.341$, $p<0.001$)과 심리사회적 안녕($\beta=0.255$, $p<0.001$), 자기효능감($\beta=0.187$, $p<0.01$)은 지각된 행동 통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1과 가설 4-2, 가설 4-3은 모두 지지되었다. 가설 2와 가설 3, 가설 4의 연구 결과는 친구 및 가족의 지지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유영미·김성희, 2019; 한송이·윤순영, 2015)와 성공적 노화 인식이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최은영·최혜경, 2015)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치유의 숲을 이용한 중장년층은 시간을 보람 있게 잘 보내는 것, 몸을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는 것,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치유관광을 매력 있고, 유익한 것으로 바라보았다. 또한 친구, 가족 등 주변인들의 지지와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치유관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공적 노화 인식과 관광 행동의도를 규명하는 데 동기적, 비동기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연구가 미비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유용성이 검증된 계획행동이론에 성공적 노화 인식을 추가하여 확장함으로써 관광학 이론 축적에 기여하는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Table 6〉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on hypotheses (H5~H7)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statistic	p-value
		B	Std. error	β		
Attitude	Behavioral intention of healing tourism	.436	.053	.434	8.276	.000***
Subjective norm		.378	.044	.404	8.632	.000***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034	.053	-.035	-.638	.524
$R^2 = .378$, Adjusted $R^2 = .372$, $F = 62.483$, Sig $F = .000$						

*** $p < .001$

5) 가설 5~7(치유관광에 대한 태도/주관적 규범/지각된 행동통제는 치유관광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독립변수로, 치유관광 행동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수정된 R^2 은 0.372로 나타나 37.2%의 설명력이 확인되었고, F값이 62.483, 유의확률 값이 0.000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은 적합하였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1.871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었고, 분산팽창지수는 1.363, 1.087, 1.453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태도($\beta = 0.434$, $p < 0.001$)와 주관적 규범($\beta = 0.404$, $p < 0.001$)은 치유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행동통제는 유의확률 값이 0.524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5와 가설 6은 지지되었고, 가설 7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계획행동이론과 관련된 선행연구(김진옥·김남조, 2013; Hong *et al.*, 2010; Lin *et al.*, 2020)의 결과와 상반된다. 아직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지각된 행동통제와 치유관광 행동의도 간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미비하며, 다른 관광 유형과 비교해 치유관광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는 더욱 미비한 실정이다. Ma, Zhao, Gong, and Wengel (2021)은 코로나19 이후 관광상품으로 치유관광을 제안하면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구 노트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나 지역, 장소와 대상에서 후속 연구를 진행하

〈Table 7〉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on hypothesis (H8)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statistic	p-value
		B	Std. error	β		
Daily well-being	Behavioral intention of healing tourism	.281	.058	.279	4.867	.000***
Psychosocial well-being		.159	.045	.172	3.568	.000***
Self-efficacy		.301	.060	.293	5.037	.000***
$R^2 = .330$, Adjusted $R^2 = .323$, $F = 50.499$, Sig $F = .000$						

*** $p < .001$

여 지각된 행동통제와 치유관광 행동의도를 살펴 보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가설 8(성공적 노화 인식은 치유관광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성공적 노화 인식의 하위 요인인 일상의 안녕,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치유관광 행동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수정된 R^2 은 0.323으로 나타나 32.3%의 설명력이 확인되었고, F 값이 50.499, 유의확률 값이 0.000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은 적합하였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1.798으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었고, 분산팽창지수는 1.506, 1.068, 1.55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상의 안녕($\beta=0.279$, $p<0.001$)과 심리사회적 안녕($\beta=0.172$, $p<0.001$), 자기효능감($\beta=0.293$, $p<0.001$)은 치유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8-1과 가설 8-2, 가설 8-3은 모두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공적 노화 인식과 행동 관련 선행연구(이윤주·박정숙, 2015; 최은영·최혜경, 2015)의 결과와 유사하다. 반면 베이비부머의 성공적 노화 인식과 레저스포츠 참여의사 간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이병찬·이천희, 2013)의 결과와는 상반되는데, 이는 레저스포츠에 비해 치유관광이 몸과 마음, 정신의 건강과 같은 웰니스를 추구하는 관광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V. 결 론

건강과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치유의 숲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고령화 현상으로 100세 시

대 진입이 다가오는 가운데 치유의 숲을 이용한 중장년층의 성공적 노화 인식과 치유관광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는 일상의 안녕,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으로 구성된 성공적 노화 인식을 계획행동이론에 추가하여 치유관광과 관련된 중장년층의 행동의도를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치유의 숲을 이용한 중장년층은 성공적 노화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의 성공적 노화 인식 중 일상의 안녕은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사회적 안녕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효능감은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치유관광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공적 노화 인식의 일상의 안녕,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은 치유관광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주로 노년학, 간호학, 체육학 등에서 다루고 있는 성공적 노화와 관광학의 치유관광을 대상으로 학제 간 접근을 시도하였다. 계획행동이론에 성공적 노화 인식을 추가하여 중장년층의 치유관광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관광학 연구의 학술적 의의가 있다. 계획행동이론에 영향력 있는 요인을 추가하여 행동의도를 파악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진옥·김남조(2013)는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이 급증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계획행동이론에 기후변화인식이라는 요인을 추가하였고, Lin *et al.*(2020)는 대만의 중년층과 노년층이 자전거 관광을 선호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계획행동이론에 스포츠습관이라는 요인을 추가하였다. 다른 관광 유형과 비교해 아직 건강과 웰니스관광 유형에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Hudson, Thal, Cárdenas, & Meng, 2017).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에서 관광자는 압박감과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지나 명상, 한방과 관련된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행태를 보여주고 있으며(이진희·김남조,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관광 중 하나로 치유관광이 제안되고 있다(Ma, Zhao, Gong, & Wengel, 2021). 더욱이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성공적 노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연구는 성공적 노화 인식과 치유관광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초기연구로써 관련 후속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이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 관광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혁신적인 관광정책에 대한 논의가(이유규·구정대, 2020) 나오는 현시점에서 여행의 일상화라는 최근 트렌드에 맞게 치유관광지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관광개발의 주체는 지역이며, 지역 주도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 수립될 것이다. 일시적으로 관광자의 방문을 유도하는 관광 목적물을 만드는 것보다 지역만의 특색을 가진 콘텐츠와 지역주민을 위한 치유의 숲, 산림 치유센터 등의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산림 자원 기반의 치유관광자원과 관련된 예로,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2020년 ‘불암산 산림치유센터’를 개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 포항시는 2021년 치유센터와 치유숲길을 포함한 ‘내연산 치유의 숲’을 조성하였다(포항시청, 2021).

다음으로 중장년층의 치유관광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공적 노화를 비롯한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는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는 개인적·정책적인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다(김미령·김주

현·김정근·양홍권, 2015). 건강을 관리하고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는 것은 중장년층 본인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김현성 외, 2019), 치유관광 프로그램 지원과 참여 유인 등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장년층이 자발적으로 제작·참여할 수 있는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변화된 사회,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중장년층의 성공적 노화를 지원하는 데 있어 치유관광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학술적·실무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치유의 숲 중 한 곳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조성된 환경과 대상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 사계절 중 비교적 선선한 가을에 한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사후 설문조사 결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향후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사전·사후 차이분석, 치유의 숲 이용 여부에 따른 차이분석, 연구 시기의 다양화 등을 적용한 연구를 제안한다.

Declaration of competing interest

None.

Author's contribution

Kim, Jeong-Hwan: Conceptualization, Methodology, Qualitative Analysis and Writing. Kim, Nam-Jo: Supervision and Validation.

References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 Organizational Behaviou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https://doi.org/10.1016/0749-5978\(91\)90020-T](https://doi.org/10.1016/0749-5978(91)90020-T)
- An, J. S., Kang, I., & Kim, Y. J. (2009). Development of successful aging measurement for Korean mid to later adul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3(4), 225-245.
- Baltes, P. B., & Baltes, M. M. (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lasanti, T. (2016). Combating ageism: How successful is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56(6), 1093-1101. <https://doi.org/10.1093/geront/gnv076>
- Cho, J., Martin, P., Poon, L. W., & Georgia Centenarian Study. (2015). Successful aging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oldest-old adults. *The Gerontologist*, 55(1), 132-143. <https://doi.org/10.1093/geront/gnu074>
- Cho, T. H., Lee, Y. H., & Kim, S. M. (2014). Forest therapy participation and its economic spillover effect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7(4), 1479-1499.
- Choi, E. Y., & Choi, H. K. (2015). Effects of the successful aging recognition and retirement expectation on retirement preparation of the first and the second baby-boom generations. *Financial Planning Review*, 8(3), 23-57.
- Chou, K. L., & Chi, I. (2002). Successful aging among the young-old, old-old, and oldest-old Chines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4(1), 1-14. <https://doi.org/10.2190/9K7T-6KXM-COC6-3D64>
- Corazon, S. S., Stigsdotter, U. K., Moeller, M. S., & Rasmussen, S. M. (2012). Nature as therapist: Integrating permaculture with mindfulness-and acceptance-based therapy in the Danish Healing Forest Garden Nacadia. *European Journal of Psychotherapy & Counselling*, 14(4), 335-347. <https://doi.org/10.1080/13642537.2012.734471>
- Dunn, H. (1959). What high-level wellness means.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50(11), 447-457.
- Eunpyeong-gu Office. (2020). 도심속 숲은 힐링 공간, 은평구 봉산 편백나무숲. 보도자료. 서울.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Massachusetts: Addison-wesley.
- Han, S. Y., & Yun, S. N. (2015). Successful aging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the Korean elderly : Focused on family suppor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6(4), 372-379. <http://doi.org/10.12799/jkachn.2015.26.4.372>
- Hong, K., Gittelsohn, J., & Joung, H. (2010). Determinants of customer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a Korean restaurant health promotion program: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25(2), 174-182. <https://doi.org/10.1093/heapro/daq005>
- Hudson, S., Thal, K., Cárdenas, D., & Meng, F. (2017). Wellness tourism: Stress alleviation or indulging healthful habit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e,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11, 35-52. <http://doi.org/10.1108/IJCTHR-09-2015-0111>
- Jang, Y. S., & Son, Y. H. (2017). A study on user behavior of forest therapeutic

- trails focusing on case of korea and japa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Forest Recreation*, 21(3), 35-45. <http://doi.org/10.34272/forest.2017.21.3.004>
- Kang, I. (2016). Perceptions of successful aging and preparations for the later life among the baby boom cohor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9), 460-472. <https://doi.org/10.5392/JKCA.2016.16.09.460>
- Kim, C. K., Lee, S. Y., Lee, Y. J., Jeong, J. J., & Choi, W. Y. (2016). *Encyclopedia of Counseling*. Seoul: Hakjisa.
- Kim, H. S., Lee, K. Y., Kim, K. M., Lee, K. C., Ahn, J. Y., & Hwang, J. G. (2019). The impact of social networks and leisure life on the subject health condition of middle aged single-person households. *Journal of Leisure Studies*, 17(1), 73-94. <https://doi.org/10.22879/slos.2019.17.1.73>
- Kim, J. O. (2015). *The Impact of Nature-Based Outdoor Recreation Settings on the Healing Tourists' Attention Restoration and Quality of Life: Focusing on the participants' at 'Forest Healing' progra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Kim, J. O., & Kim, N. J. (2013). Outdoor recreation participants' cognition of climate change influencing on their behaviors : Applying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auto campers in winter.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7(6), 11-32.
- _____ (2017). Policy implications of nature-based healing tourism using the program logic model: Focusing on policy framework for sustainable healing tourism. *Journal of Tourism Sciences*, 41(10), 105-123. <https://doi.org/10.17086/JTS.2017.41.10.105.123>
- _____ (2019).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 among tourists' mindfulness, healing restorative environment perception, attention restor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of participants in a nature-based healing program. *Journal of Tourism Sciences*, 43(2), 55-78. <https://doi.org/10.17086/JTS.2019.43.2.55.78>
- Kim, M. R., Kim, J. H., Kim, J. K., & Yang, H. K. (2015). *Retirement preparation and quality of life for baby boomers*. Seoul: Hakjisa.
-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21). *Demographic changes and domestic tourism in south korea: Implications and policy responses*. Seoul.
- Lee, B. C., & Lee, C. H. (2013). A study of relations among successful ageing awareness,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attitude.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2(2), 197-211.
- Lee, E. J., & Sung, M. H. (2017). Impacts of health perception, aging anxiety and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late middle-aged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3(3), 181-190. <https://doi.org/10.17086/10.4069/kjwhn.2017.23.3.181>
- Lee, H. G., Kim, K. Y., & Sim, J. S. (2020). The effects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s leisure activities on depression and successful aging.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29(4), 165-175. <https://doi.org/10.24992/KJHT.2020.06.29.04.165>
- Lee, J. H., & Kim, N. J. (2021). Experiences of potential tourists' tourism behavior chang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A grounded theory approach. *Journal of Tourism Sciences*, 45(5), 57-76. <http://dx.doi.org/10.17086/JTS.2021.45.5.57.76>
- Lee, J. H., Yoo, R. H., & Lee, J. W. (2016). Analysis on visitors of healing forest for improvement of forest healing program.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Forest Recreation*, 20(4), 73-80. <https://doi.org/10.34272/forest.2016.20.4.007>
- Lee, J. W., Yeon, P. S., Park, S. H., & Kang, J. W. (2018). Effects of forest therapy programs on the stress and emotional change of emotional labor worker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Forest Recreation*, 22(3), 15-22. <https://doi.org/10.34272/forest.2018.22.3.002>
- Lee, U. H., Park, S. C., & Kim, D. J. (2020). The effects of hobby and leisure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on perceived quality of life and intention to use o2o service.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35(1), 57-76. <https://doi.org/10.21719/IJTMS.35.1.4>
- Lee, Y. J., & Park, J. S. (2015).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for successful aging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late middle age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2), 1073-1086.
- Lee, W. K., & Goo, J. D. (2020). Government's innovative tourism policy research in response to Post-COVID-19. *Journal of Tourism Sciences*, 44(7), 87-106. <http://dx.doi.org/10.17086/JTS.2020.44.7.87.106>
- Lin, S. W., Hsu, S. Y., Ho, J. L., & Lai, M. Y. (2020). Behavioral model of middle-aged and seniors for bicycle tourism. *Frontiers in Psychology*, 11, 407. <https://doi.org/10.3389/fpsyg.2020.00407>
- Ma, S., Zhao, X., Gong, Y., & Wengel, Y. (2021). Proposing "healing tourism" as a post-COVID-19 tourism product. *Anatolia*, 32(1), 136-139. <https://doi.org/10.1080/13032917.2020.1808490>
- Martinson, M., & Berridge, C. (2015). Successful aging and its discontents: A systematic review of the social gerontology literature. *The Gerontologist*, 55(1), 58-69. <https://doi.org/10.1093/geront/gnu037>
- Marquez, D. X., Bustamante, E. E., Blissmer, B. J., & Prohaska, T. R. (2009). Health promotion for successful aging. *American journal of lifestyle medicine*, 3(1), 12-19. <https://doi.org/10.1177/1559827608325200>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7). 웰니스관광 25선 선정, 건강과 힐링 관광 본격 육성. 보도자료. 세종.
- Minkler, M., & Fadem, P. (2002). 'Successful aging': A disability perspective.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12(4), 229-235. <https://doi.org/10.1177/104420730201200402>
-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2009). *Korea University Korean Dictionary*. Seoul: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 Rowe J. W., & Kahn R. L.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https://doi.org/10.1093/geront/37.4.433>
- Ryff, C. D. (1989). Beyond ponce de leon and life satisfaction: New directions in quest of successful ag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2(1), 35-55. <https://doi.org/10.1177/016502548901200102>
- Park, S. H., Shin, W. S., Choi, J. H., Shin, C. S., Yeon, P. S., & Lee, J. Y. (2020).

- Development and validity for the socio-psychological benefits scale (SPBS) of forest therap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Forest Recreation*, 24(3), 43-56.
- Pohang City Hall. (2021). 포항시, '내연산 치유의 숲' 준공으로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보도자료. 포항.
- Sa, H. J., Lee, C. W., & Kim, M. J. (2017).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participation, successful aging, and social support among older adul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6(5), 511-521. <https://doi.org/10.23949/kjpe.20017.09.56.5.37>
- Sabia, S., Singh-Manoux, A., Hagger-Johnson, G., Cambois, E., Brunner, E. J., & Kivimaki, M. (2012). Influence of individual and combined healthy behaviours on successful aging. *Cmaj*, 184(18), 1985-1992. <https://doi.org/10.1503/cmaj.121080>
- Seoul Tourism Organization. (2020). 수고했어 올해도, 내년에도 힘내! 은평구에서 차분히 즐기는 연말연시 힐링과 치유의 시간. 보도자료. 서울.
- Shirani, M., Kheirabadi, G., Sharifirad, G., & Keshvari, M. (2019). The effect of education program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on successful aging. *Iranian Journal of Nursing and Midwifery Research*, 24(3), 234-238. https://doi.org/10.4103/ijnmr.IJNMR_31_15
- Smith, M., & Puczko, L. (2008). *Health and wellness tourism*. New York: Routledge.
- Statistics Korea. (2020). 2019년 중·장년층 행정 통계 결과. 보도자료. 대전.
- Steiner, C. J., & Reisinger, Y. (2006). Understanding existential authenticity. *Annals of Tourism Research*, 33(2), 299-318. <https://doi.org/10.1016/j.anna>
<https://doi.org/10.1016/j.anna>Is.2005.08.002
- Villar, F. (2012). Successful ageing and development: The contribution of generativity in older age. *Ageing and Society*, 32(7), 1087. <https://doi.org/10.1017/S0144686X11000973>
- Voigt, C., Brown, G., & Howat, G. (2011). Wellness tourists: In search of transformation. *Tourism Review*, 66, 16-30. <https://doi.org/10.1108/16605371111127206>
- Vukin, M., & Isailović, G. (2018). A cure and healing forest of Goc mountain-A new approach to health tourism in Serbia. *Tourism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Vrnjačka Banja - TISC*, 3(2), 732-749.
- Wray, M., Laing, J., & Voigt, C. (2010). Byron Bay: An alternate health and wellness destinatio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17(1), 158-166. <https://doi.org/10.1375/jhtm.17.1.158>
- Yoon, H. J. (2020). Tourist activity and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in Korean baby boom generation.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32(3), 115-130. <https://doi.org/10.31336/JTLR.2020.3.3.2.3.115>
- You, Y. M., & Kim, S. H. (2019). Successful ageing among the elderly : Influence of support from family and friends.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y Review*, 23(1), 1-16.

국문참고문헌

- 강인(2016).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 인식과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9), 460-472. <https://doi.org/10.5392/JKCA.2016.16.09.460>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2009).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서울: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 김미령 · 김주현 · 김정근 · 양홍권(2015). 『베이비붐

- 세대의 노후준비와 삶의 질』. 서울: 학지사.
- 김진옥(2015). 『자연기반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 환경이 치유관광객의 주의회복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치유의 숲'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미발행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김진옥 · 김남조(2013). 기후변화 인식이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참여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7(6), 11-32.
- _____ (2017).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적용한 자연기반 치유관광의 정책적 함의 - 지속가능한 치유관광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 『관광학연구』, 41(10), 105-123. <https://doi.org/10.17086/JTS.2017.41.10.105.123>
- _____ (2019). 자연기반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한 관광객의 마음챙김(Mindfulness), 치유회복환경지각, 주의회복,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학연구』, 43(2), 55-78. <https://doi.org/10.17086/JTS.2019.43.2.55.78>
- 김춘경 · 이수연 · 이운주 · 정종진 · 최용용(2016). 『상담학 사전』. 서울: 학지사.
- 김현성 · 이기영 · 김강민 · 이교창 · 안준형 · 황재건(2019).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및 여가생활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여가학연구』, 17, 73-94. <https://doi.org/10.22879/slos.2019.17.1.73>
- 문화체육관광부(2017). 웰니스관광 25선 선정, 건강과 힐링 관광 본격 육성. 보도자료. 세종.
- 박석희 · 신원섭 · 최중환 · 신창섭 · 연평식 · 이주영(2020). 산림치유의 사회심리적 편익 척도 개발과 타당화.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4(3), 43-56.
- 사혜지 · 이철원 · 김민정(2017). 노인들의 여가참여, 성공적 노화, 그리고 사회적지지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6(5), 511-521. <https://doi.org/10.23949/kjpe.20017.09.56.5.37>
- 서울관광재단(2020). 수고했어 올해도, 내년에도 힘내! 은평구에서 차분히 즐기는 연말연시 힐링과 치유의 시간. 보도자료. 서울.
- 안정신 · 강인 · 김윤정(2009). 한국 중노년 성인들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225-245.
- 유영미 · 김성희(2019).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1), 1-16.
- 윤혜진(2020). 베이비붐 세대의 관광활동과 성공적 노화 인식. 『관광레저연구』, 32(3), 115-130. <https://doi.org/10.31336/JTLR.2020.3.3.2.3.115>
- 은평구청(2020). 서울 최초 치유의 숲 은평 편백나무 힐링숲 조성. 보도자료. 서울.
- 이병찬 · 이천희(2013). 베이비 부머의 성공적 노화 인식과 여가 태도, 레저스포츠 참여시간의 관계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2(2), 197-211.
- 이운해 · 박상철 · 김동진(2020). 중장년층 취미레저 관련 특성이 지각된 삶의 질과 O2O서비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35(1), 57-76. <https://doi.org/10.21719/IJTMS.35.1.4>
- 이용규 · 구정대(2020).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정부의 혁신적인 관광정책 연구. 『관광학연구』, 44(7), 87-106. <http://dx.doi.org/10.17086/JTS.2020.44.7.87.106>
- 이윤주 · 박정숙(2015). 중년후기 여성의 성공적 노화인식과 건강증진행위의 관계.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2), 1073-1086.
- 이은정 · 성미혜(2017). 중년후기 여성의 건강지각, 노화불안, 성공적 노화인식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3(3), 181-190. <https://doi.org/10.17086/10.4069/kjwhn.2017.23.3.181>
- 이정원 · 연평식 · 박석희 · 강재우(2018).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감정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2(3), 15-22. <https://doi.org/10.34272/>

- forest.2018.22.3.002
- 이정희 · 유리화 · 이정원(2016).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치유의 숲 이용객 특성 분석.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0(4), 73-80. <https://doi.org/10.34272/forest.2016.20.4.007>
- 이진희 · 김남조(2021). 근거이론에 기반한 팬데믹 시대 잠재관광자의 관광행동 변화 경험 연구. 『관광학연구』, 45(5), 57-76. <http://dx.doi.org/10.17086/JTS.2021.45.5.57.76>
- 이호길 · 김광용 · 심준섭(2020).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가활동이 우울증과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효과. 『호텔경영학연구』, 29(4), 165-175. <https://doi.org/10.24992/KJHT.2020.06.29.04.165>
- 장윤선 · 손용훈(2017). 치유의 숲 내 치유숲길 이용특성에 관한 연구 - 한일간 치유숲길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1(3), 35-45. <http://doi.org/10.34272/forest.2017.21.3.004>
- 조택희 · 이연호 · 김상미(2014).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실태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경제연구』, 27(4), 1459-1499.
- 최은영 · 최혜경(2015). 성공적 노화인식과 은퇴기대가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Financial Planning Review』, 8(3), 23-57.
- 통계청(2020). 2019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 보도자료. 대전.
- 포항시청(2021). 포항시, '내연산 치유의 숲' 준공으로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보도자료. 포항.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관광 정책방향』. 서울.
- 한송이 · 윤순녕(2015).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지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6(4), 372-379. <http://doi.org/10.12799/jkachn.2015.26.4.372>